

# 日帝下 大倣敎 南道本司의 활동

삿사 미츠아키(佐佐充昭)\*

## 目 次

1. 머리말
2. 1910년대 무단통치기 남도본사의 활동
3. 문화정치기 남도본사의 재건과 『동아일보』
4. 1920년대 남도본사의 활동
5. 1930년대 남도본사의 활동
6. 맺음말

## 1. 머리말

1909년에 대종교를 重光한 나철은 일제의 종교탄압을 피하기 위해 1914년 총본사(교단 본부)를 만주 북간도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총본부가 중국으로 이전되었다고 해도 국내의 교단 조직이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었다. 즉 총본사의 국외 이전에 따라 한반도 내에는 南道本司라는 지부조직이 설치되었고, 일제의 심한 단속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1930년경까지 포교활동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종교에 관한 연구는 중국으로 망명한 대종교도들의 항일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국내에 머문 남도본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sup> 그것은 다음과 같은

---

\*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

이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당시의 대종교가 가장 과격한 민족주의사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내내 시종일관 총독부 측에서 엄한 종교탄압을 받아 국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것이 막연한 선입감으로 믿어져 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대종교 연구가 주로 대종교 측이 간행한 『大倣敎重光六十年史』<sup>2)</sup>에 전면적으로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육십년사』는 해외로 망명한 대종교인들의 민족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편집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안에는 일제하 국내에 머문 남도본사 소속 신도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일부의 통계자료를 제외하고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의 대종교 연구에서 국내 남도본사의 존재가 간과되어 왔던 것도 이와 같이 『육십년사』 안에 남도본사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자료적 제약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제하 국내에 설치된 남도본사는 일제의 皇民化정책이 본격화된 1930년대 전반까지 유사종교단체로 규정을 받으면서도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증거로 일제하에 간행된 신문이나 잡지 등 각종 자료를 보면 대종교 남도본사에 관한 기사가 다수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육십년사』에 게재된 기록 이외에, 남도본사에 소속된 대종교인들의 문집이나 일기, 나아가 그 당시 국내에서 간행된 신문·잡지 등의 각종 자료들을 참조하면서 일제하 대종교 남도본사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대종교가 일제하 국내에서도 포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한국사상계에 단군사상을 보급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1) 최근에 발표된 황민호, 「대종교의 항일민족운동」, 『일제하 경기도 지역 종교계의 민족문화운동』, 경기문화재단, 2001에서는 남도본사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남도본사에 관한 유일한 연구이다.

2) 『大倣敎重光六十年史』, 대종교총본사, 1971. 이하 본서를 『육십년사』로 줄여 쓴다.

## 2. 1910년대 무단통치기 남도본사의 활동

1910년대의 한국은 데라우치(寺內) 총독에 의한 무단통치 체제하에 있었으며, 대종교도 거의 금지에 가까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1910년대 대종교의 활동 모습을 전하는 자료에는 “서울 남도 본사에는 湖石 姜虞, 石儂 柳瑾 등 간부진으로 隱忍自重해 가며 교무를 시행하게 하”<sup>3)</sup>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910년대에도 남도 본사가 폐쇄된 것이 아니었으며, 매우 제한된 형태로나마 조직 자체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종교 총본사에서는 1917년에 교의회를 열어 교구를 새로 확정하였다. 그 때 남도본사에 소속한 주요간부들의 명단이 공포되었는데, 그것을 보면 姜虞가 ‘南一道本司’를 ‘領道’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sup>4)</sup> 이로써 국내에 설치된 남도본사가 주로 강우에 의해 주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忠南 扶餘郡 場岩面 長亭里에서 태어난 姜虞(호는 湖石 : 1862~1932)는 한말에 고향을 중심으로 약 80여개의 야학을 설립하는 등 주로 교육계몽활동에 종사하였다.<sup>5)</sup> 그후 그는 나철이 1909년에 증광한 대종교에 입교하여 독실한 신도가 되었다. 1914년 5월 대종교 총본사가 북간도 靑波湖로 옮겨졌을 때에는 나철의 명을 받아 만주로 건너갔다. 거기서 그는 만주 馬族 수천 명을 대종교에 입교시켰으며, 또한 길림성 연길현 官道溝에 天英學校를 설립하는 등 在滿동포의 교육사업에 진력하였다. 이와 같이 강우는 1910년대에 주로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국내에는 없었다. 그러므로 1910년대의 남도본사는 강우가 아니라 다른 대종교인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1910년대의 남도본사는 柳瑾(호는 石儂 ; 1861~1921)이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말에 『황성신문』의 사장을 맡은 것으로 잘

3) 『독립운동사』, 제8권 「문화투쟁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792쪽.

4) 현규환, 『한국유이민사』, 어문각, 1969, 569쪽.

5) 『湖石先生文集』, 제4권 <부록> 「家狀」,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2집,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7, 515쪽.

알려진 유근은 대종교 증광에 참가한 고참 신도였고 한말 당시부터 대종교 포교활동에 진력하였다. 그는 『황성신문』의 주필을 맡은 박은식과 절친한 사이였으며 그와 함께 『황성신문』의 계몽활동을 통해서 단군사상의 보급에 힘썼다. 또한 그는 대종교 제2대 교주인 김교헌과도 친형제처럼 사귀었다. 그들은 모두 역사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서로 협력하면서 대종교 문헌의 편집과 간행을 추진해 나갔다. 특히 대종교의 대표적 역사서인 『단조사고』와 『신단실기』는 편역상 김교헌의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김교헌과 유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저술하였다고 한다.<sup>6)</sup> 이와 같이 유근은 대종교의 활동에 주력하면서, 주로 언론 계몽활동을 통한 민족운동에 진력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에 『동아일보』가 창간되었을 때에는 同 신문의 편집감독을 맡게 되었다. 『동아일보』라는 이름도 유근이 명명한 것이라고 한다.<sup>7)</sup> 이에 관해 당시 자료에는 “서울 남도 본사의 石農 柳瑾 등이 대종교계를 대표하여 각 종교 사회단체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가며 운동을 진행하”<sup>8)</sup>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1910년대의 남도본사가 한국언론계의 중진으로 사회적 지위와 신용을 얻고 있었던 유근의 힘에 상당한 부분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1910년대에 남도본사의 활동을 배후에서 지원한 중요한 협력자로 김윤식을 들 수 있다. 주지하듯이 金允植(호는 雲養; 1835~1922)은 한말 당시 온건개화파로 활약하고 1907년에는 中樞院 議長에 임명된 고급관료였다. 그런데 나철은 1883년에 김윤식의 문인이 되어서부터<sup>9)</sup> 김윤식을 평생 스승으로 받들었다. 그 관계로 김윤식은 나철이 대종교를 창립하였을 때 증광식에 함께 참석하고 스스로 신도가 되어 나철에게 物心 양면에 걸친 원조를 하였다. 실제로 1912년 당시 善隣상업학교 3학년이었던 나철의 아들이 빈곤으로 인해 통학이 곤란해

6) 權憲圭, 「石農先生과 歷史言語」, 『隨筆集 乙支文德』, 正音社, 1946, 46쪽.

7) 『東亞日報』, 1921년 5월 22일자, 제3면 제3단, 「嗚呼石農先生」. 조동걸 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창작과 비평사, 1994, 61쪽.

8) 『독립운동사』, 제8권 「문화투쟁사」, 793쪽.

9) 나철은 22세가 되던 1883년에 서울에 올라 남산에서 열린 대신들의 花見會에 동석하고 自作의 卽興詩가 인정되어 김윤식의 문인이 되었다. 金允植, 『續陰晴史(上)』, 권8, 국사편찬위원회, 1960, 419쪽.

지자 김윤식은 그 아들을 자택에서 떠맡아 양육하기도 하였다.<sup>10)</sup> 이와 관련하여 대종교 측의 자료에는 김윤식이 대종교에 입교한 신도였음을 증명해 주는 기록이 남아 있다. 나철이 구월산 삼성사에서 자결한 직후 1916년 음력 8월 21일에 남도본사에서 그의 장례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때 올린 「致祭式祭文」에는 “知敎 金允植著”로 쓰여져 있다(『육십년사』, 265쪽). 이를 통해 김윤식이 知敎의 지위에 있었던 대종교 신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윤식은 1922년 1월에 사망하였는데, 그 때 발표된 신문기사를 보면 “(그는) 십여년 톨로 대종교(大倣敎)를 신앙하여 아침마다 각사(覺辭)라는 글을 외우고 개턴절(開天節)과 어턴절(御天節) 등 각 경절에 쓰는 경하사(慶賀辭)를 지은 일이 잇”다고 보도되었다.<sup>11)</sup> 또한 남도본사를 주관한 강우도 “남도본사의 禮樂을 남겼고 … 이번 가시는 길 분명히 한배님께 뵈올 것”<sup>12)</sup>이라고 애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김윤식이 스스로 대종교에 입교하고 교단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윤식은 한일합방 때에 子爵을 수여 받아 1915년에는 日本帝國學士院의 회원이 되고 1916년에는 經學院 大提學을 맡게 되는 등 당시를 대표하는 실력자였다.<sup>13)</sup> 그러므로 무단정치가 시행되고 대종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1910년대에 김윤식은 남도본사의 활동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문화정치기 남도본사의 재건과 『동아일보』

항일적인 색깔을 전면에 내세운 대종교는 무단통치가 실시된 1910년대에 총독부 당국의 가혹한 감시와 단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

10) “文卿(寅永)之子正文 爲善隣商業學校三年生 貧無以赴學 自今日來吾家宿食 赴學” 『續陰晴史(下)』, 권14, 辛亥(1911) 11월 12日條, 359쪽.

11) 『東亞日報』, 1922년 1월 26일자, 제3면 제5단, 「大倣敎의 致奠式」.

12) “嗚呼雲養老先生 九臺光陰嗚不平 東國文章誰結局 南司禮樂又遺名 一三眞理 誠爲篤 十六私論志未成 此去分明天祖觀 爲陳兄弟願祈情” 『호석선생문집』, 권2 「雲養金允植 叅判 輓詩」(1921), 앞의 책, 492~3쪽.

13)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파 99人(1)』, 돌베개, 1993, 131~6쪽.

한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내에 설치된 남도본사도 유근이나 김윤식과 같은 한국사상계의 원로들의 힘에 의해 그 명목만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후 사이토(齋藤實) 총독이 취임하여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함으로써 무단통치하에서 시행된 종교탄압 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무렵 여태까지 만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강우가 조선독립선언의 혐의로 1919년 4월 해외재류 금지령을 받아 동년 7월 국내로 귀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종교 남도본사는 주로 강우와 유근 등 교단 간부진의 주도 아래 다시 공적인 포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1920년대 초에 대종교가 국내에서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재개했을 때, 남도본사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강력한 찬동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대종교의: 필자 주) 그 본부가 녁고답으로 올라간 후에 경성에서는 조선안에 있는 만흔 신도를 통일하는 기관이 업슴이 유감이라 하여 지식영 리규환 주성호(池錫永, 李圭煥, 周性鎬)씨 등이 남도본사를 계동(桂洞)에 설립하고 윤덕영 민병석(尹德榮, 閔丙奭)씨 등으로부터 매삭 오백원식의 보조를 바다 잡지를 발간하느니 사업을 하느니 하여 교세가 자못 떨치어 조선에 오만명의 교도가 잇섯다”<sup>14)</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尹德榮과 閔丙漢 등의 조선귀족이 대종교에 입교하여 남도본사에 매월 5백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이다.<sup>15)</sup> 여기에 나오는 윤덕영은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고종과 궁중의 일

14) 『東亞日報』, 1928년 1월 6일자, 제2면 제1단, 「朝鮮人으로써 創始된 宗教와 秘密團體解剖 숨은 事實과 들어난 內容(4)」.

15) 이 사실에 관해서는 당시의 여러 자료에 기록이 남아 있다. 예컨대 『每日申報』에는 “윤덕영(尹德榮子)가 교인이 된후 지경의 궁핍을 잠근 버셔나셔 장차 교무는 진던되려고”(1922년 6월 6일자, 제3면 제4단, 「大宗教新舊衝突」) 하였다고 전하였고, 요시카와(吉川文太郎)도 “大正10(1921)년에 至히야 富豪貴族 尹德榮 閔丙漢等이 入教히야 巨資를 投히야 資金의 困窮을 免

족들을 합방에 합의하도록 설득시켜 그 공헌이 인정되고 합방 후에는 자작의 작위를 받아 李王職 掌侍司長에 임명된 친일귀족의 거두였다. 또한 민병석도 그와 마찬가지로 한일합방에 협력하고 자작의 작위를 받아 李王職 長官에 임명되고 일제시대를 통해 윤덕영과 함께 왕실에 절대적인 권세를 부린 인물이었다. 이러한 친일귀족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지식영 등의 저명인사들이 계동에 새로 남도본사를 재건하여 포교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또한 1920년대의 대중교 남도본사 재건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1920년에 창간된 『동아일보』는 남도본사의 활동을 배후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아일보』가 창설되었을 때 대중교 간부인 유근은 同社의 편집감독에 취임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의 창간 당초부터 『동아일보』 지상에서는 대중교에 대한 선전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창간 직후인 1920년 4월에는 “檀君은 우리 民族의 宗祖이시오 … 崇高하신 檀君尊像을 求하여 讀者와 共히 拜하”겠다고 하여 일반독자로부터 단군의 초상화를懸賞으로 모집하는 캠페인이 실시되기도 했다.<sup>16)</sup>

이와 같이 창간 당초부터 『동아일보』에서 벌어진 단군 캠페인은 실제로 남도본사에 소속된 대중교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權惠圭(호는 崖溜; 1890~1950)를 들 수 있다. 권덕규는 『朝鮮語文經緯』(廣文社, 1923년)를 간행하는 등 국어학자로 활약하는 한편, 1924년과 1926년에 『朝鮮留記』上·中卷(尙文館), 1929년에는 그것을 축소한 교과서용 교재인 『朝鮮留記略』(尙文館)을 간행하는 등 당시를 대표하는 국문학자이자 역사학자로 활약하였다.<sup>17)</sup> 또한 그는 1920년 5월 『동아일보』 지상에 늙은 유학자들을 통렬히 비판한 「

흥게 되얏”(吉川文太郎, 『朝鮮諸宗教』, 朝鮮興文會, 1922, 358쪽)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徐門榮秩』(한양대도서관 신용하문고 소장)에도 ‘參敎’로서 “閔丙奭; 壬. 三. 十八”(10쪽)과 “尹德榮; 壬. 三. 十八”(10쪽)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16) 『東亞日報』, 1920년 4월 12일자, 제3면 제3단, 「檀君影幀懸賞募集」.

17) 권덕규의 경력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 조동걸, 「민족사학의 분류와 성격」,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3, 392~400쪽; 최기영, 「崖溜權惠圭(1891~1949)의 생애와 저술」, 『한국사학사연구』, 나남출판, 1997.

假明人頭上에 一棒」라는 기사를 발표함으로써 일약 각광을 받아 동아일보의 간판 주필진의 하나가 되었다.<sup>18)</sup> 한편 그는 스승인 주시경과 유근의 영향을 받아 대종교에 입교하여 남도본사 안에서 젊은 혁신파를 주도한 열렬한 대종교 신도이기도 하였다.<sup>19)</sup>

권덕규는 1920년 4월의 창간 당초부터 『동아일보』 지상을 통해 단군 사상의 선전을 주도하였다. 그는 1920년 4월 1일의 『동아일보』 창간 제1호에 게재한 「東亞解」라는 기사에서, “通古斯族을 古에 倍達族이라 하니 그 始祖檀君의 檀의 我語를 取함이요”라고 하듯이 ‘배달민족’을 논하면서 ‘弘益人間’의 이상을 주장하였다.<sup>20)</sup>

또한 1921년에 권덕규를 중심으로 『동아일보』 지상에서 백두산을 한 민족의 聖山으로 삼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전개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즉 “조선민족의 시조단군(檀君)이 탄강하고 조선 안에서는 데일 높은 산으로 … 백두산(白頭山)은 실로 조선민족의 넷 력사와 발원지”라고 하여, 1921년 8월에 동아일보 본사에서는 ‘白頭山登山隊’를 편성하고 특파원과 사진반을 백두산으로 파견하였다.<sup>21)</sup> 그리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동년 8월 27일에는 동아일보사 주최로 ‘백두산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이 강연회에서는 권덕규가 「조선역사와 백두산」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행하였고, 사진반은 현지에서 촬영한 백두산의 모습을 슬라이드 사진으로 공개하였다.<sup>22)</sup> 또한 이 강연회의 내용은 동년 8월 29일의 『동아일보』 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sup>23)</sup> 그리고 동년 8월 29일자 의 『동아일보』에서는 제3면 상단 전면에 걸쳐 천지의 전경사진이 대대적으로 게재되었다.<sup>24)</sup> 이 때의 기사는 “我社의 手에 最初로 展開되는

18) 『東亞日報』, 1920년 5월 8~9일자, 제1면 제1단, 桓民 한별, 「假明人頭上에 一棒(1)~(2)」.

19) 최기영, 「애류 권덕규의 생애와 저술」, 앞의 책, 479쪽. 나중에 권덕규는 「石農先生の 歷史言語」(『朝鮮日報』, 1932년 3월 26일~4월 6일)라는 회고담을 쓰고 유근과 대종교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20) 『東亞日報』, 1920년 4월 1일자, 제5면 제4단, 權惠圭, 「東亞解」.

21) 『東亞日報』, 1921년 8월 6일자, 제3면 제3단, 「我民族의 發祥地! 神話傳說的 白頭山에」.

22) 『東亞日報』, 1921년 8월 26일자, 제3면 제5단, 「特寫幻燈使用, 白頭山講演會」; 동, 8월 27일자, 제3면 제1단, 「今夜! 白頭山講演會」.

23) 『東亞日報』, 1921년 8월 29일자, 제3면 제3단, 「公開된 聖山の 神秘」.



靈山의 大神秘”, “아직도 세상에 보지 못한 신기하고 장엄한 삼십대에 이른 사진”<sup>25)</sup>으로 백두산을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백두산 천지의 사진이 이 때 처음으로 일반 대중 앞에서 공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권덕규가 집필한 기사 외에도 남도본사의 활동에 관한 기사를 많이 게재하였다. 그 대부분은 대종교 남도본사에서 거행된 각종 경축행사에 관한 것이었다.<sup>26)</sup> 예컨대 1920년 5월 5일자의 기사에서는 가회동에 있는 대종교 남도본사에서 ‘어천절’ 행사가 거행되었으며 수백 명의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권덕규와 朴一秉에 의한 강연이 행해졌다고 보도하고 있다.<sup>27)</sup> 이 때 권덕규와 함께 강연을 행한 박일병은 『동아일보』가 창간되었던 당시의 논설위원이었다.<sup>28)</sup> 그의 경우도 유근을 통해 대종교에 입교한 것으로 생각된다.<sup>29)</sup>

또한 다음해인 1921년 4월 22일에도 대종교 남도본사에서 거행된 어천절 행사의 모습이 보도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어천절 경하식이 끝난 후에 강연회가 열렸고 宋鑣禹가 「조선인」, 박일병이 「神市」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어천절 강연을 맡은 송진우는 3·1 운동을 일으켰던 48명 중의 한 사람으로 일제에 의해 체포된 후 일년 반 동안 옥중생활을 지낸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는 출옥후 김성수의 뒤를 이어 동아일보사의 사장에 취임하였고, 이후 30여 년간 同社의 사장·고문·주필 등을 역임한 『동아일보』의 중진이었다.<sup>30)</sup> 이러한 사실에서 동아일보사의 핵심 간부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종교 남도본사의

- 24) 『東亞日報』, 1921년 8월 29일자, 제3면 제1단, 「千古의 神秘境인 天池의 全景」.
- 25) 『東亞日報』, 1921년 8월 27일자, 제3면 제1단, 「今夜! 白頭山講演會」.
- 26) 황민호, 「대종교의 항일민족운동」, 304쪽에서는 1920년대에 남도본사가 주최한 개천절 기념행사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고 있다.
- 27) 『東亞日報』, 1920년 5월 5일자, 제3면 제2단, 「崇嚴한 御天節」.
- 28) 최준, 『신보판 한국신문사』, 일조각, 1997, 187쪽. 동아일보 시절에 민족주의 노선을 걸던 박일병은 1922년 1월에 무산자동맹에 가입하여 사회주의로 전향하면서 대종교와의 관계를 끊었다.
- 29) 『倭門榮秩』(신용하문고 소장)에는 ‘參教’로서 “朴一秉; 壬. 七. 二十”(5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 30) 최준, 앞의 책, 200쪽.

활동을 뒷받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4. 1920년대 남도본사의 활동

1920년대 초에 남도본사가 재건되자, 조선귀족이나 동아일보계 인사들의 원조를 받으면서 대종교의 포교활동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전반에 대종교의 교세가 해마다 확대해 나간 모습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지상에서 ‘중광식(음 1월 15일)’, ‘어천절(음 3월 15일)’, ‘가경절(음 8월 15일: 나철이 승천한 기념일)’, ‘개천절(음 10월 3일)’ 등 대종교의 경축행사가 남도본사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음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31)</sup>

그런데 1920년대 초의 이러한 교세확장은 단지 남도본사 뿐만 아니라 대종교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었다. 그것은 1919년의 3·1운동을 계기로 해외와 국내의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기운이 급격히 고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제2대 교주 김교헌은 날로 늘어나는 신도와 시교당을 좀더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각 교구를 더욱 세분화하는 ‘교구분리조례’를 발표하였다(『육십년사』, 342쪽). 남도본사에 관해서 본다면, 1922년 6월 4일에 발표된 ‘綜令’에서는 그때까지 ‘南一道本司’에 소속된 전 구역을 제1·제2·제3의 支司로 분할하고, 나아가 ‘남일도교구분리조례’를 발표하여 각 지사에서 해당구역내의 각 시교당을 관리케 하였다(『육십년사』, 344쪽). 나아가 교단내의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동년 6월 4일자 ‘綜諭’를 통해 성금조례를 공포하여 남도본사 안에 성금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면서 교금의 출납, 보관의 방법을 정하였다(『육십년사』, 347쪽). 이것은 한반도 국내에서 교인과 시교당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의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좀더 많은 신도회비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렇게 해서 모은 교단자금을 바탕으로 남도본사에서는 교단 산하의 桂善學院에서 여자야간부를

31) 남도본사에서 거행된 대종교 경축행사의 내용은 황민호, 앞의 글, 305~7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신설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부녀자들에게 야간교육을 실시하는 등<sup>32)</sup> 다채로운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선교활동에 의해 남도본사의 교세는 서서히 확장되어 서울의 남도일본사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활발한 교단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대중교의 각종 경축 행사가 지방에서도 성대히 거행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sup>33)</sup>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남도본사는 1922년경부터 심한 내분 소동이 일어나서 큰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내분 문제에 관해서는 『매일신보』에 자세히 보도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도본스에는 던리(典理) 강우(姜虞)씨 선리부령(宣理部領) 김청(金淸) 외 스오인의 간부가 잇서서 모든 교무를 처리하여 오던 바 남도교인으로만 칠팔만 명임에 불구하고 이 간부들은 모든 일을 넘우 전단덕으로 힘하고 교인의 여론을 존중히 역이지 안이하디 월여전부터 교헌에 의하여 중앙본사에는 교의회(敎議會)를 둔다고 하얏스나 아직중앙본스에 교의회가 업스딴 위선 남도본스에 남도본사의회를 두고자 하얏스며 의회의 전신은 즈문으로 하지 안이하고 결의로 하자고 하여 여기에서 한 혁명을 이르키고 적하얏더니 간부들은 이 여론에 반대하매 일전에 립시교인대회(臨時敎人大會)를 열고 이에 대한 선후칙을 강구하고자 하여 지는 일요일에 교인 이백명이 본사에 모힌 후 대회를 열엇는데 여론은 일치하여 전기간부는 결국 전부 사임하고 그후 다시 새로히 간부를 선거하얏스나 각도본사 간부는 도사교가 임명하는 것이 미본 사너에서 임명하는 것은 도사교의 권리를 침회하는 것이라 하여 의론이 분분하다가 이것 역시 사임케 하고 간부의 임명은 각도에 잇는 중앙본사 도사교의 명령만 기다리고 잇다”<sup>34)</sup>

이 기사의 내용을 통해 1922년 6월경부터 남도본사에서 교단운영의

- 32) 『朝鮮日報』, 1923년 7월 14일자, 제3면 제3단, 「女子夜學又設」.  
 33)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기사에 대중교 지방조직에서 거행된 경축행사의 모습이 보도되었다. 『東亞日報』, 1922년 11월 28일자, 제4면 제5단, 「光州의 開天節敬賀」; 『朝鮮日報』, 1923년 5월 13일자, 제4면 제3단, 「御天節의 紀念式」. 『朝鮮日報』, 1923년 9월 29일자, 제4면 제2단, 「嘉慶節敬賀式的 盛況」.  
 34) 『每日申報』, 1922년 6월 6일자, 제3면 제4단, 「大倣敎新舊衝突」.

방법을 둘러싸고 주로 교단 간부진과 혁신적인 청년신도들 사이에 심한 대립이 생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전까지 남도본사는 강우를 중심으로 한 몇몇 간부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교단이 본격적으로 재건됨에 따라 일부 혁신적인 신도들이 남도본사 내에 의회제도를 도입할 것을 희망하고 간부진의 퇴진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신문기사는 대립하는 양 진영 중에서 혁신적 신도 측에 선 申明均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교단측 간부들은 혁신적 신도들의 이러한 견해와는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예컨대 남도본사를 주관한 강우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도본사의 노소교도들의 의사 충돌로 하여 분규가 극도에 이르고 끝내는 수습할 수 없게 되므로 부득이 그 중의 심한 사람 4인을 黜敎시”<sup>35)</sup>켰다. 이 언급에서 결국 늙은 간부들이 젊은 혁신파 4명을 출교시킴으로써 이 내분 소동을 수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동아일보』 1924년 11월 26일자 기사로 보면, 대종교 남도본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충돌로 인해 신·구 양파로 갈라졌으므로 이것을 합동시켜 대종교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대종교 진흥회’를 조직하고자 준비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sup>36)</sup> 이러한 기사의 내용을 통해 남도본사의 분열 소동은 192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의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교단의 내분 소동은 더욱더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분열 소동은 남도본사의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던 것 같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귀족으로부터의 경제 원조가 중단되어 그 이후 남도본사는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1925년에는 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李龍泰가 회장을 맡아 대종교진흥회를 조직하여 교단의 진흥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sup>37)</sup>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25년에는 대종교 신도

35) 『호석선생문집』, 제4권 「家狀」, 518쪽.

36) 『東亞日報』, 1924년 11월 26일자, 제2면 제2단, 「大倣敎振興會」.

37) 『東亞日報』, 1925년 11월 17일자, 제2면 제1단, 「西道八個所에 大倣敎新支部」; 동 12월 11일자, 제5면 제7단, 「大倣敎人大會 …」; 동, 12월 31일자, 제2면 제6단, 「大倣敎에 曙光 …」.

인 金容起에 의해 『檀典要義』라는 역사서가 간행되는 등<sup>38)</sup> 남도본사에서서는 단군사상의 보급에 힘썼다. 그리고 이듬해 1926년에는 각 방면의 (삭제) 인사들의 협찬을 얻어 새로 선전부를 설치하였으며, 서울에 단군사묘를 건축하는 것을 비롯해 구월산 삼성사의 중건, 평양 승령전의 수축, 강화 마니산 제천단의 보수, 단군 古史의 간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였다.<sup>39)</sup>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도 남도본사의 활동은 1920년대 중반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1927년이 되면 남도본사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던 것 같다. 『동아일보』 1927년 5월 14일자 기사에 의하면, 대중교에서는 “시내 궁정동(宮井洞) 룡심오반디에서 립시도의회(道議會)를 하리라는데 토의사항은 남일도본사(南一道本司) 부활문데라더라”고 보도되었다.<sup>40)</sup> 이러한 기사를 통해 1927년 전반에는 남도본사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년(1927) 후반 경에는 본부를 諫洞으로 옮기고 남도본사의 활동이 다시 재개되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남도본사의 주변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이 시기부터 이른바 ‘朝鮮學’이라는 국학 운동이 일어나고 국내 학자들 사이에 단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의 저명 학자들이 대중교 남도본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예컨대 1927년 10월에 거행된 개천절 행사에서는 文一平이 ‘天祖의 降世’, 李允宰가 ‘검 「光神」의 化’라는 제목의 기념강연을 행하였다.<sup>41)</sup> 또한 1928년 2월에 거행된 중광절 행사에서도 최남선이 ‘久遠한 단군’, 정인보가 ‘중광절과 조선’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행하였으며,<sup>42)</sup> 1928년 11월 24일의 개천절에서도 최남선과 정인보에 의해 같은 제목의 기념강연이 행해졌다.<sup>43)</sup>

이와 같이 대중교가 국내 학자들에게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남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남선은 1920년대 후반부터

38) 金容起 著作兼發行, 『檀典要義』, 檀典要義發行所, 1925.

39) 『東亞日報』, 1926년 4월 22일자, 제2면 제3단, 「大倭教의 新計劃」.

40) 『東亞日報』, 1927년 5월 14일자, 제2면 제11단, 「大倭教道議會招集」.

41) 『東亞日報』, 1927년 10월 26일자, 제2면 제10단, 「開天節紀念講演」.

42) 『東亞日報』, 1928년 2월 2일자, 제2면 제5단, 「大倭教重光二十周年紀念」.

43) 『東亞日報』, 1928년 11월 23일자, 제2면 제3단, 「開天節紀念講演」.

단군에 관한 논저를 정력적으로 발표해 나갔다.<sup>44)</sup> 최남선의 단군 연구는 질·양적으로 가장 충실하고 다른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국내에서 단군사상의 체계화와 보급은 그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남선이 단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실은 대종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해 대종교측 자료에서는 최남선이 마음속으로 대종교 신자임을 자부하였고, 김교현이나 유근의 역사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5)</sup>

이렇듯 최남선을 중심으로 저명 국학자들이 남도본사의 활동에 협찬하여 단군 선양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1928년 1월에 『한빛』이라는 종합잡지가 간행되었다.<sup>46)</sup> 이 잡지의 편집 겸 발행인은 제3호까지 李允宰, 중간호까지는 李灝가 맡았는데, 이들은 남도본사에 소속한 대종교인이었다. 또한 본지는 ‘한빛社’에서 발행되었는데, 인쇄소는 ‘南道一本司’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본지는 남도본사의 대종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간행된 잡지였음을 알 수 있다.<sup>47)</sup> 이 잡지에는 한국의 역사·지리·어학 등 여러 분야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게재되었다.<sup>48)</sup>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최남선이 奎 號에 걸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최남선은 「朝鮮歷史講話(1)」(창간호)·「白頭山」(창간호)·「개아지」朝鮮(2월호)·「民族自覺의 始初」(3월호)·「高句麗의 興起」(4·5월병합호)·「檀君窟의 靈蹟 가진 寧邊의 妙香山」(4·5월병합호, 6월호)·「新羅의 勃興」(6월호) 등 이 잡지에 많은 기사를 투고하였다. 이

44) 최남선의 단군론에 관해서는 이영화, 「崔南善 檀君論의 전개와 그 변화-檀君에서 檀君으로, 檀君에서 檀君으로」, 『한국사학사학회』 5, 한국사학사학회, 2002. 3, 참조.

45) 이현익, 「대종교인과 독립운동연원」, 『대종교보』, 2000년 가을호, 대종교총본사, 49쪽.

46) 『한빛』 통권 6호(전 5권)을 묶은 영인본이 민족문화사에서 판매되었다(출판년 미상). 본고에서는 이 영인본을 참조하였다.

47) 『朝鮮日報』, 1927년 11월 25일자, 제2면 제5단, 「한빛誌創刊」.

48) 예컨대 문일평의 「高麗의 國家的 理想」, 崔鉉培의 「吏讀文字란 무엇이나?」, 한결의 「조선말과 글」, 金道泰의 「우리 朝鮮의 人材登庸하던 이야기」, 李重華의 「武烈王의 碑身에 對하여」, 李能和의 「朝鮮歷史의 遺物 遺蹟」, 洪淳赫의 「世界的 學界에 大驚異를 畀 新羅僧慧超에 對하여」, 李丙燾의 「古朝鮮 四郡疆域考」, 安自山の 「太極旗에 對한 一考」 등, 당시를 대표하는 저명 국학자들의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다.

것은 최남선이 이 잡지의 최대 후원자였으며, 또한 이 잡지가 최남선이 추진한 조선학 운동의 일환으로 간행된 잡지였음을 시사해 준다. 대종교가 주관하는 잡지에 당시의 대표적인 저명 학자들이 대거 참가·합류하게 된 것도 배후에 최남선의 알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잡지에는 대종교와 관련된 기사도 많이 실렸다. 예컨대 창간호의 冒頭를 장식하는 권두논문으로 강우가 쓴 「上古의 神人化降과 한빛의 意義」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거기서는 “한빛은 곧 天神 한검의 빛이며 一神大倣 한배검의 빛이라”고 하여 “半萬年 以前에 한배검의 教化를 친히 입은 血統宗族은 특히 그를 紀念”<sup>49)</sup>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간호에는 李瀾가 「한배의 옛터」라는 글을 게재하였으며, 강우도 앞의 논문 외에 2월호에 「重光 20周年을 맞는 戊辰歲 上元」, 「愛吾歌」·「重光節」 등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제2대 교주 김교헌이 저술한 「神檀民史」(1월~5월호)가 연재되고, 梁昉煥의 「大倣敎와 弘巖大宗師-重光二十週年の 追憶」(2월호), 「弘巖大宗師의 略歷」(2월호) 등 대종교의 교단사에 관한 글도 실렸다. 이 잡지는 국내에서 조선학 운동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상계에 단군사상을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5. 1930년대 남도본사의 활동

1920년대까지 대종교 남도본사는 『동아일보』 및 조선학운동을 주도한 저명 국학자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서 남도본사는 드디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도본사의 총책임자였던 강우의 기록에 의하면, “남도본사 형편이 점점 더욱 위축 쇠미하여, 신전을 봉안할 곳도 없으므로 天眞(단군 초상)을 金萊圓의 旅舍에 봉하여 둔 지 1년이 넘었”<sup>50)</sup>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강우는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며 극력 재물을 모아, 값이 헐한 곳을 찾아 동대문 밖 치우친 곳에 전세 집을 얻”<sup>51)</sup>었다. 이렇게 해

49) 湖石姜虞, 「上古의 神人化降과 한빛의 意義」, 『한빛』 창간호, 3쪽.

50) 『호석선생문집』, 제4 「家狀」, 앞의 책, 519쪽.

서 1930년 4월에 단군 신전을 동대문 밖 新堂里 蓮華洞에 봉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군 御眞을 봉안할 때에도 협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강우는 단신으로 동대문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강우는 대종교가 보급되지 못함을 탄식하면서 다음 해인 1931년 2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관해서는 대종교측 자료에도 서울에서 계동·간동·신당동 등 각지를 전전한 남도본사가 마침내 일제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1930년에 문을 닫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다(『육십년사』, 185쪽). 그러므로 강우의 죽음에 따라 남도본사가 완전히 폐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울의 남도본사가 폐쇄된 후에도 지방의 대종교 지부 중에는 포교활동을 계속한 조직도 있었다. 총독부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930년대에도 아직 대종교 교단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1932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대종교의 교세에 대해 포교기관이 경상남도에 한 곳(신도수 4명), 함경남도에 한 곳(신도수 57명), 신도수 합계 61명으로 보고되었다.<sup>52)</sup> 또한 1937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대종교의 포교기관에 대해 충청북도 한 곳(신도수 10명), 함경북도 두 곳(신도수 39명), 신도수 합계 49명으로 보고되었다.<sup>53)</sup>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와서 우가키(宇垣) 총독이 취임하게 되자 여태까지의 문화통치가 종언을 고하고 소위 皇民化政策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더욱이 1935년 이후부터는 유사종교단체에 대한 이른바 사교단속운동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언론계에서도 유사종교를 비판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예컨대 대종교에 대해서도 『삼일신고』는 한국 고대의 경전이 아니라 근대에 날조된 위서라고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는 등 대종교를 사교로 보는 논조가 일반화되었다.<sup>54)</sup> 이와 같이 언론을 총동원한 유사종교 박멸정책 속에서 국내의 대종교 활동은 완전히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51) 위의 글.

52) 「宗教類似團體道別表」(昭和7(1932)年末現在), 西坂定雄,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昭和八年・十三年』, 嚴南堂書店, 1966, 127쪽.

53) 「宗教類似團體道別教勢表」(昭和12(1937)年末現在), 위의 책, 81쪽.

54) 『朝鮮日報』, 1935년 2월 9일자 석간, 제4면 제8단, 「僞書의 三一神話」.



그러나 일제의 황민화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 1930년대에는 단군과 관련된 일대 국민운동이 일어났다. 즉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江東縣에 있는 檀君陵을 수축하고자 하는 이른바 檀君陵修築運動이 발흥하게 된 것이다.<sup>55)</sup> 그리고 대종교 남도본사의 간부들도 이 단군릉수축운동에 편승하면서 단군사상의 계몽활동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였다. 예컨대 『三千里』 1936년 4월호에서는 「大倭教와 時勢」라는 특집란을 만들어 전 남도본사의 간부들이 대종교의 교리를 선전하는 기사를 실었다. 권덕규는 「대종교는 역사상으로 어떠한가」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이 世上을 맨들으시고 우리 人類에게 神誥를 나리신 壇君, 天神人 三位一體이신 壇君은 … 果然 大倭이시다”<sup>56)</sup>라고 호소하였다. 그 외에도 일찍이 『한빛』의 간행을 주관한 이윤재는 「대종교와 조선인」이라는 글을 실어 「大倭教弘範」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였다.<sup>57)</sup> 또한 전 남도본사 신도인 유진태도 「감격으로 들은 기쁜 소식」이라는 글을 실었는데, 거시서는 “近年에 와서 檀君陵改築 그리고 요지음 다시 大倭教를 이르킨다는 것은 檀君의 後裔로서는 當然한 일이나 成事라 않을 수 없고 반가운 일이올시다”<sup>58)</sup>고 말하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단군릉수축운동의 자극을 받아 전 남도본사 간부들 사이에서 국내의 대종교 조직을 재건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일제가 중국 및 英美를 향해 전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라서 이러한 대종교 신도들의 노력은 실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대종교의 활동은 물론 단군운동 자체도 완전히 수그러졌다.

55) 이 운동의 내용은 『東亞日報』, 1932년 4월 26일자, 제3면 제4단, 「朝鮮의 始祖 檀君墓修築」; 동, 5월 15일자, 제7면 제6단, 「檀君陵修築期成會組織」 등, 당시의 신문기사에 자세히 보도되어 있다. 이 단군릉수축공사는 1936년에 완성되었다.

56) 權惠奎, 「大倭教는 歷史上으로 어떠한가」, 『三千里』, 1936년 4월호, 三千里社, 136~7쪽.

57) 李允宰, 「大倭教와 朝鮮人」, 위의 책, 141~3쪽.

58) 兪鎮泰, 「感激으로 맞는 吉문 消息」, 위의 책, 143쪽.

## 6.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제하 국내에서도 남도본사를 중심으로 대종교의 포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사실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중국으로 이전한 대종교 총본사에서 전개된 활동과 국내의 남도본사에서 전개된 활동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었다. 즉 해외 망명지에서 이루어진 대종교의 활동은 민족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국내 남도본사에서는 단군사상을 한국사회에 보급시키는 언론 계몽활동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해외에 망명한 대종교인들이 항일독립 투쟁의 주체적 세력이 된 반면에, 일제하의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도본사에서는 일제의 종교탄압을 피하기 위해 온건한 언론 계몽 활동 밖에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도본사에서는 동아일보의 간부진이나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국학자 등 당시의 한국사상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사상가들의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단군사상을 깊이 수용하게끔 함으로써 국내에서 단군사상을 보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남도본사의 개괄적인 연혁 밖에 살피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종교가 전개한 단군운동의 전체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외의 대종교 조직과 남도본사가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러한 연계관계를 통해 일제하에서 전개된 단군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등, 앞으로 국내 남도본사의 활동에 관한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ctivities of *Namdobonsa* of *Daejonggyo* under Japanese Imperialism

Sassa Mitsuaki

*Ra-Cheol*(羅喆) who founded *Daejonggyo* in 1909 moved headquarters to North Kando of China in 1914, in order to avoid religious suppression of Japanese imperialism. With overseas relocation of headquarters, the branch called *Namdobonsa* was established in Korea. In spite of severe control and suppression of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Namdobonsa* had continued propagation activities until the first half of the 1930s in which the policy of forcing Japanese customs(皇民化政策) got become serio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about activities of *Namdobonsa* of *Daejonggyo* developed under Japanese imperialism.

In the 1910s under the military rule run by *Terauchi* governor-general, since severe religion control of Japanese imperialism was enforced, *Daejonggyo* had been barely maintained by several leading members. However, from the 1920s when the cultural rule had been started by *Saito* governor-general, *Namdobonsa* was rebuilt and *Daejonggyo* resumed propagation activities in Korea. After the reconstruction of *Namdobonsa*, by raising of the independent consciences after

the Samil resistance movement, *Daejonggyo's* influence was temporarily expanded all over the country. However, in *Namdobonsa*, the serious division disturbance arose from immediately after reconstruction between the old leading members and young innovative believers involving the religious group's management. According to such an internal trouble, *Namdobonsa* lapsed into the difficult situation, and *Daejonggyo's* influence and scale had been decreased gradually.

However, on the other hand, various movements for advocating Dangun had been developed focusing on *Namdobonsa*. For example, various kinds of Dangun campaign was performed in the *Dongailbo* paper by influence of the leading members concerned with foundation of the *Dongailbo* company. Moreover,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920s, the Korean classical scholars who advocated the so-called "Korean Study(朝鮮學)" had developed enhancement movements about Dangun, cooperating with the members of *Namdobonsa*. Such an Dangun enlightenment movement that *Namdobonsa* promoted had spread Dangun thought upwards in Korea, and played the big role. In order to study the whole Dangun movement which *Daejonggyo* made, it will be necessary to do more deep research about *Namdobonsa* established in Korea.